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0.18~2017.10.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참선은 제일 수승하고 압축된 법문”

청화 스님의 참선공부법

청화 스님 지음 | 상상출판 펴냄 | 1만 5천원



참선은 우리 불교서 제일 수승(殊勝)하고 제일 압축된 법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의 총 결론 가운데서 최고도의 수행법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善知識)으로 추앙받는 청화 스님은 일생을 참선수행에 몰두한 수행자이다.

이번에 발간된 〈청화 스님의 참선공부법〉은 스님이 평소 직접 설한 참선 공부비법을 담은 책 이다. 청화 스님이 생전에 직접 법문한 것을 원음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불자들을 위해 쉽고 간결히 정리돼 있다.

책은 제 1부 ‘청화 스님의 금타 대화상 ‘보리방편문 설법’과 제 2부 ‘청화 스님의 참선 법문-참선(參禪)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참선인가?’로 구성돼 있다. 1부 법문은 청화 큰스님이 1990년 4월 21일 광주 금륜회관서 금륜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금륜회는 청화 큰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던 광주 지역 재가불자들의 모임. 청화 스님은 이 법문서 금타 대화상의 〈보리방편문〉의 핵심을 전해준다.

용수 보살이 저술한 책 중 〈보리심론〉이라 하는 논장에 공부하는 요체가 많이 설명된 가운데, 〈보리방편문〉은 〈보리심론〉 중 공부와 관련한 핵심을 청화 스님의 은사 금타 (1898~1948) 대화상이 간추려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청화 스님은 “보리란 깨달음의 뜻으로서 〈보리방편문〉은 견성오도의 하나의 방편이다. 정(定)과 혜(慧)를 가지런히 지니는 마음을 한 가지 경계에 머물게 하는 묘한 비결이니 잘 읽어서 뜻을 깨달은 후 고요한 곳에 처하고 제일절만 써서 단정히 앉아 바로 보는 벽면에 붙여서 관(觀)하고 생각하되 관의 일상삼매(一相三昧)로 견성(見性)하고 념(念)의 일행삼매(一行三昧)로 오도(悟道)함이라, 〈육조단경〉의 일상삼매나 일행삼매와도 상통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정진 바란다”고 밝혔다.

법문서 청화 스님은 “〈보리방편문〉서는 한마디로 심즉시불(心卽是佛), ‘마음이 바로 부처’ 임을 말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말한 것이 〈보리방편문〉의 줄거리다. 조금 복잡하게 이론 전개가 돼 있고 법문도 상당히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도파(道破)했다. 이것이 방편문의 대의”라고 전한다.

2부 법문은 청화 큰스님이 40년간의 일일일식(一日一食)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처절한 토굴수행을 마치고 1985년 곡성 태안사서 3년결사를 결행하기 위해 6.25 이후 폐허가 된 도량을 정화하고, 그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사부대중들과 함께 4박 5일의 하계용맹정진을 감행하면서 참선에 대한 주옥같은 법문을 하루 한 시간씩 5번 설법한 것으로 참선

저자가 직접설한 참선공부 비법

참선실수의 모든 것 정리 압축

실참실수의 모든 것이 압축돼 들어 있다. 특히 이 법문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참선의 필요성과 중요성,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이 특징이다.

“참선이 무엇인가?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선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번잡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산업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해결책, 산업사회의 혼란상, 물질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폐단, 이것을 구제하는 면에서 참선 같은 양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선을 하고 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청화 스님은 법문서 특히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 마음이 불심(佛心)서 안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참선이다. 염불, 참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서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의 현 위치가 불심을 딱 간직하면 그때는 그것이 참선이다.”책 속에서는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염불과 염불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또 알아야 한다. 관음보살(觀音菩薩)이나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저만큼 밖에 계신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들 기운이 우리를 돕는다. 이 정도는 염불선이 못된다.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운수라든가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것 그런 정도로 부처님 이름을 외워서는 염불선이 못된다. 그것은 방편염불에 불과하다. 염불이 염불선이 되려면 부처를 자기 마음 밖에서 구하지 않고서, 내 마음의 실체, 내 마음의 실상이 바로 부처다, 이와 같이 분명히 느껴야 한다. 또는 천지우주의 실상이 바로 부처다, 이와 같이 느낌으로 해야 비로소 염불이 염불선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禪)을 하고 있다. 성불의 가장 지름길, 성불의 정문, 성불의 첩경, 참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야할 길 가운데서 가장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다”

청화 스님은 또 참선 공부 방법으로 선오후수와 정혜쌍수를 강조한다. “참선은 꼭 선오후수(先悟後修)라, 먼저 천지우주의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생각, 내가 바로 부처라는 생각 말이다. 내가 봐서, 못난 내가 봐서 범부로 보는 것이지, 부처가 보면 내가 똑같이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인 것이다. 어떤 누구나가 다 부처인 것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시에도 임만이 임이 아니라 바로 보면 산도, 내도, 물도, 다 임이다. 바로 보면 다 부처님이다. 이와 같이 느끼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부처 덩어리로 봐야 참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못 보면 참선이라는 말을 못 붙인다. 이렇게 보고서 그다음 문제는 정혜쌍수라, 정과 혜가 같이 아울러 가야만, 마치 수레바퀴가 둘이 되어야만 갈 수 있고, 나는 새는 날개가 둘이 돼야 높은 하늘로 고상(高翔)하듯이 우리는 꼭 정과 혜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조화롭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야 빠르다”라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수보살의 공덕 찬탄한 티베트 불교경전

문수진실명경 역해

중암 선혜 역주 | 운주사 펴냄 | 3만 5천원



티베트불교서 〈문수진실명경〉은 ‘현밀(顯密)의 핵심은 물론이고 불법의 가장 심오한 비밀법문을 설한 딴뜨라 경전들의 핵심을 162게송 속에 간추려 모아 놓은, 제호 가운데 제호와 같은 가르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예로부터 인도와 티베트의 성취자들이 일상의 일과로 독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래의 지신을 밝히는 보석 거울과 같은 경전으로, 나아가 수행과 해탈의 지남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18세기에 주석서를 쓴 용진 예시걜챈(智幢)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도와 티베트의 선대의 현자와 성취자들은 이 딴뜨라 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간직한 뒤 널리 전파했다. 특별히 법왕 쫑카빠 대사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간직한 뒤 날마다 새벽이면 이 문수진실명송을 3차례에 걸쳐서 독송하되 끊어짐이 없었다. 다른 때와 장소에서도 제일 많이 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딴뜨라의 요의(要義)를 큰 제자들에게 널리 전수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가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티베트불교에서는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고 있다.

이 〈문수진실명경〉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루 빠다마삼바와(蓮花生)의 다음과 같은 언급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수레의 정수리의 장엄이며, 일체법의 총군(總君)이며, 모든 현밀(顯密)의 해와 달이며, 모든 현밀의 정왕(頂王)이며, 모든 경장의 거울이며, 모든 속장의 주석이며, 모든 딴뜨라들의 왕이며, 모든 대집언교의 요의이며, 모든 비밀구결의 정의이며, 모든 난처들의 석의이며, 모든 심의들의 구경이며, 처음과 끝의 둘의 연결을 끊는 이검이며, 육도 유정의 윤회의 낭떠러지를 끊는 쾌도며, 무명의 어둠을 없애는 일월이며, 심경이 집을 두드려 부수는 받침대이며,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배이며, 중생을 고해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쇠갈고리이며, 해탈을 열어주는 사다리이며, 수레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오결의 결박을 풀어냄이며, 삼독을 뿌리째 자르는 도끼이며, 성냄을 끊어버리는 삭도이며, 번뇌를 쓸어버리는 빗자루이며, 모든 유가행자들의 어머니이며, 모든 유가행자들의 아버지이며, 모든 전도된 견해들의 대치법이며, 모든 무명의 소경들의 눈이며, 견수행과 넷의 분변이며, 수법과 근수자들의 교만을 부숨이며, 모든 율의들의 입김을 불음이며, 실의에 부합하는 모든 팔만사천의 법장을 생기하는 대지이며, 모든 소망들을 남김없이 산출하는 여의주이며, 도과의 정수가 모인 제호이며, 삼세제불의 뜻을 하나로 거둔 정수이며, 모든 언교들의 의미의 중핵이며, 대원만교(大圓滿教)의 핵심 정요(精要)이며, 비밀 가운데 극비밀이며, 극비밀의 마음의 진실한 구결이며, 법신을 실제로 열어 보임이며, 지혜의 무애자재이며, 모든 수레의 집합이니, 이와 같이 공용을 씀이 없이 성불함을 열어 보임이다”

이렇듯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티베트불교서 보석과 같은 경전으로 소중하게 받들어지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래의 심오하고 지고한 궁극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삼승과 밀교에 조예가 없는 이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난해하고 심오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중암 스님의 정확하고 상세한 번역과 해설을 통해, 수행자에게 지혜의 자량이 되고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문수진실명경〉의 진실한 뜻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핵심 Q&A 33으로 짚어본 부처님 생애와 불교

불교는 왜그래?

장웅연 지음 | 최밈밈 그림 |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불교 믿는 사람은 왜 고기를 안 먹어?” “불교는 왜 머리를 깎으라고 해?” 위의 질문들처럼, 우리가 흔히 불교에 대해 갖는 궁금증에는 “불교는 왜”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그래서 다소 도발적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불교는 왜 그래?〉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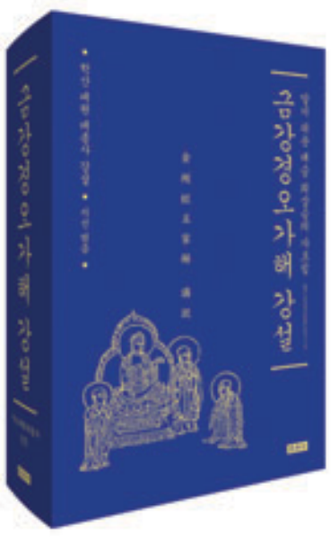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스며 있는 불교문화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을 33가지로 추려, 풀어 놓은 불교 입문서다. 하지만 읽다 보면 부처의 생애부터, 불교가 오늘날 왜 이러한 세계관을 가졌는지, 나라마다 불교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그 역사적 흐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저자는 기자로서 취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불교의 가치와 깨달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불교가 과학적 원리를 담은 종교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배고픈 짐승을 위해 살점을 떼어주는 부처님의 일화, 이발사와 장애인까지 제자로 받아준 차별 없는 정신을 보며 자비로운 불교의 면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생애 일화, 경전 인용, 저자를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어우러져 불교의 세계관을 쉽게 알 수 있게 쓰였다. 일러스트레이터 최밈밈의 유쾌 발랄한 그림도 있어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철학과 인문교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며 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대원만 보리심 수행의
안내서이자 나침반!

불자가 행해야 할
37가지 가르침



보살행의 핵심을 37개의 게송으로 정리!
해탈의 길로 이끄는 수행 차제를 아름다운 비유와 언어로 노래!

무착대사 지음/연용상사 강설
지엄 편역/국판 변형
21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